

통권 제 177호

2562
2018

07

살다 보면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들



심신성취
몸으로 짓는
선업 善業



영화 이야기
과이어트 플레이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중

뜰에 심은 저 나무가 매일 자라나지마는
항상 보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 수행 과정에도 매일 성품 좋아지나
항상 보는 사람들은 좋아진 줄 모르지만
오륙 칠년 지나보면 좋은 성품 보일지라.
이 이치를 미리 알고 가족 간에 서로 도와
꾸준하게 밀고 믿고 심공토록 할지니라.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불교총지중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불교이야기 _ 04

멸성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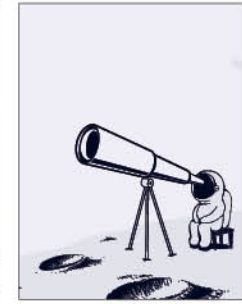
_ 화령



계율이야기 _ 16

지나치게 많은
옷을 갖지 말라

_ 법경



결망에 담긴 이야기 _ 72

우주가 언제 창조
되었는지 아십니까?

_ 법일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4 독자기고

16 계율이야기

22 살다보면

28 향유

32 십선성취

36 마음의 등불

39 산책

40 애견 칼럼

44 디딤돌

46 씨앗한알

48 법향기 속으로

54 차향기

58 설화 속으로

62 영화이야기

66 거꾸로보기

70 SNS 세상 돌아보기

72 결망에 담긴 이야기

74 뜻 바꾸기

76 되짚어보기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멸성제 1 - 화령

꽃에게서 들으라 - 월호스님

어머니의 행복 - 여순애

지나치게 많은 옷을 갖지 말라 - 법경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들 - 이옥경

내안의 습관 - 강동현

몸으로 짓는 선업(善業) - 덕현

모르는 줄 모른다 - 원효

오늘 - 김대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접종 - 권도형

꽃보다 아름다운 - 지현

중생의 마음과 연꽃의 마음 - 석준호

생명의 근원 - 법수연

다례(茶禮) - 김정애

과유불급 - 보현

콰이어트 플레이스 - 한미옥

그녀는 누구를 위해 머리카락을 기르는가(上) - 박현희

원숭이에게 배우다

우주가 언제 창조되었는지 아십니까? - 법일

맹인모상(盲人摸象) - 김재동

발심(發心)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지치고 힘든 일에 부딪칠 때마다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소서.

남 탓으로 세상 탓으로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로지 나의 실수로 인정하게 하소서.

전신이 삶의 상처로 피고름이 흘러내려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지나친 집착과 헛된 욕망에 빠져

남의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헤쳐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강한 자신감을 주소서.

가치 없는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현명함을 주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사랑하여 나날이 만족해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어리석은 내가 아니라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내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단단한 삶을 살아가게

나에게 강한 힘을 주소서.

- 김정한 『내 마음 들여다보기』

멸성제 1

화령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열반의 의미와 단계

지난번에는 고성제와 집성제를 통하여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성제의 세 번째는 멸성제입니다. 멸성제는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즉, 불교의 궁극의 목표이며 최후의 이상이라고 하는 열반을 가리킵니다. 삼법인에서 말하는 열반적정이 곧 이것입니다. 갈애를 멸하여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괴로움을 멸한 경지가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고’라는 일체개고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깨닫지 못한 무명중생의 생사윤회의 상태가 일체개고一切皆苦라면 생사를 초월하여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성자의 상태가 열반적정입니다.

집성제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우리의 괴로움은 갈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갈애는 무명을 포함한 일체의 번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갈애로 인해서 좋은 것과 싫은 것의 분별이 생기고, 좋은 것은 가지지 못해 괴롭고 싫은 것은 제거하지 못해서 화를 냅니다. 우리가 싫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방해하고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열반적정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속박을 떨쳐버리고 심신이 온전한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는 무애자재의 경지가 열반입니다. 그것은 번뇌의 근본인 무명을 제거하고 지혜

를 밝힘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친다는 것도 지혜를 밝혀 무명의 번뇌를 떨치고 무애자재의 경지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친다는 것은 곧 열반적정을 얻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열반을 얻기 위한 깨침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견도^{見道}와 수도^{修道}가 그것인데, 견도는 이론적, 관념적인 미망으로서의 견혹^{見惑}을 끊는 깨침이고, 수도는 정의적^{情意的}, 습관적인 미망으로서의 수혹^{修惑}을 끊는 깨침입니다. 쉽게 말하면, 견도는 삿된 견해를 여의고 바른 견해를 지님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수도는 올바른 수행에 의하여 우리에게 훈습된 나쁜 습성을 버림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견혹에는 흔히 탐^貪·진^瞋·치^癡·만^慢·의^疑의 근본 번뇌와 심신에 실체적 자아가 있다고 보는 신견^{身見}, 모든 것은 단멸한다든가 상주한다고 생각하는 치우친 견해인 변견^{邊見},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견^{邪見}, 자기의 견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견취견^{見取見}, 터무니없는 계율이나 맹세를 해탈의 참 원인으로 여기는 계금취견^{戒禁取見}의 오견^{五見}을 더하여 열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더 상세하게 나누어 팔십팔사^{八十八使}라고도 합니다.

수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감각적, 육체적 미혹으로서 정의적이고 습관적인 번뇌라고 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의 습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훈습된 번뇌입니다.

견도에 의하여 연기와 사성제의 이치를 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체득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과 같이 소금이 짜다는 것은 알아도 그것으로 음식의 간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실천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깨침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깨침이 체득이 되어 실천될 수 있어야 진정한 열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으로도 사성제와 같은 교리를 잘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수행에 의하여 사성제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깨침을 견도와 수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깨침은 열반에 이르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많은 재가신자들이 부처님을 처음 뵈고 시론, 계론, 생천론의 삼론에 의해 불도로 인도되고, 더 나아가서 연기의 이치와 사성제에 대한 설법을 듣고 법안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초보단계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연거나 사성제에 대한 이치를 이론적으로 이해해서 초보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법·승의 삼보를 믿으며 공경하고 계행을 지키는 것에 의하여 연거나 인과의 이치가 깨쳐집니다. 이것을 사증정^{四證淨}이라고 합니다.

이지적으로 깨치든 실천에 의해서 깨치든 초보의 깨달음을 얻은 사

람은 불교의 진리에 맞게 살아가며 계율을 범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옥 아귀 축생 등의 악취계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불타법(不墮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미래에 반드시 열반에 이를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정성결정(定性決定), 혹은 정정취(正定聚)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다시는 윤회의 세계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불퇴전의 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견혹을 끊어 법안을 얻는 것만으로도 샅된 견해를 여의고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범부의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깨달음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견혹만 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수혹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습관적인 악습과 습성 등이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수혹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최고의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견혹은 지혜로써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을 버리면 즉시 끊을 수 있는 것이지만, 수혹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본성처럼 훈습된 것이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습니다. 나쁘다고는 알고 있어도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것이 수혹입니다. 수혹은 오랫동안의 습성에 의해 굳어진 거의 본능에 가까운 번뇌이기 때문에 끊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이 몸에 나쁘다는 것

은 알고 있어도 끊기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담배나 술이 건강을 해치고 해롭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눈앞에 담배나 술이 있으면 저절로 손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술이나 담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나쁜 습성들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굳센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히고 화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단절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이 나쁜지도 모르고 마구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나쁜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를 고친다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견도와 수도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온 천지가 꽃이다. 풀과 나무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속뜻을 활짝 열어 보이고 있다. 철따라 꽃이 핀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고마운 일이다. 제철이 와도 꽃이 피지 않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고 삭막하겠는가. 이 어디서 온 눈부신 꽃들인가.

꽃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피지 않는다. 여름철의 그 뜨거운 피약벌 아래에서 그리고 모진 겨울 추위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참고 견뎌 낸 그 인고의 세월을 꽃으로 열어 보이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입만 열면 경제와 돈타령만 늘어놓느라고 자신이 지닌 아름다운 속뜻을 열 줄을 모른다. 경제에만 정신을 빼앗겨 아름다움을 잃어간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를 물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인간성이 소멸되어 간다고 걱정한다. 사람의 감성이 메말라 간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성을 이루고 감성을 키우는가.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그리고 사람다운 특성을 인간성이라고 부른다. 철따라 꽃이 피어나도 볼 줄을 모르고, 달이 뜨는지 기우는지 자연 현상에 아예 관심이 없다. 이것이 무엇에 홀리거나 쫓기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증상이다.

봄철에는 꽃을 보러 멀리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된다. 오고가는 길가에서,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손바닥만 한 뜰에서, 또는 들충계 틈에서도 꽃은 핀다.

건성으로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 곁에서 유심히 들여다보라. 꽃잎 하나하나, 꽃술과 꽃받침까지도 놓치지 말고 낱알이 살펴보라. 그리고 꽃이 놀라지 않도록 알맞은 거리에서 꽃향기를 들어보라. 꽃향기는 맡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 옛 글에도 문향^{문향}이라 표현했다. 이 얼마나 운치 있는 말인가. 꽃향기를 들어 보면 아름다운 세상이 결코 먼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때로는 꽃 앞에서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고, 세상사는 이야기도 두런 두런 나눠보자. 짐이 훨신 가벼워지고, 꽃한테서 많은 위로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물을 가까이하면 은연중에 그 사물을 닮아간다. 꽃을 가까이 하면 꽃 같은 인생이 된다. 이것이 신비로운 우주의 조화다.

누구나 바라는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오늘 내가 겪는 불행이나 불운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곧 불행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간다.

사람에게는 그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우주가 그에게 준 선물이며 그 자신의 보물이다. 그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긍정적인 사고가 받쳐주어야 한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마다 잘 풀린다. 그러나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되고 일마다 꼬인다.

이 세상은 공평무사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스물네 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진다.

이 귀중한 우주의 선물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가. 밝은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어두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시시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지닌 생각이 우리 집안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 명심할 일이다.

옛 스승(임제선사)은 말한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서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리라.”

자신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되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면된다.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이런 도리를 이 봄철에 꽃한테서 배우라.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서 옛 스승은 다시 말한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꾸미지 말라. 있는 그대로가 좋다.”

여기에서 말한 ‘일 없는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일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 일에 눈멀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자유로워진 사람을 가리킨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말라. 아름다움이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가 그만이 지닌 그 특성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철없는 사람이 꽃철에 철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내 곁에서 꽃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



어머니의 행복

여순애
자석사 교도

가을날 벼가 무르익을 쫓이면 난 엄마와 함께 큰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러 간다.

제사를 지낸 뒷날 알람보다 더 빨리 나를 깨우는 웅성대는 소리에 눈을 뜨고 방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셨다.

농사일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것이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지하고 내용도 풍부했다. 창으로 햇빛이 비치고 그으르고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보였다.

너무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 총지종의 노보살님들도 부처님 농사를 지으신다. 이번 부처님 오신날에도 연등행렬 때 비가 왔지만 노보살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그 빗속에서도 웃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척 아름다웠다.

일생을 부처님을 마음에 두신 우리 보살님들은 빗물도 부처님의 뜻이라 여기는 것 같았다.

우리 엄마도 부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젊은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때의 열정이 73세인 지금도 자신의 마음에 남아서 힘이 있는 한 부처님 일을 하실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본인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해 하신다.

누구나 뒤돌아보면 젊은날엔 건강과 열정이 있어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노령이 되어서는 몸이 따라 주지 않고 건강이 나빠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슬픈가 보다.

그런 연세 많으신 노년의 농부들 농사일에 기쁨이 평생 정진하신 노보살님들의 기도에 결실이 부처님을 생각하시는 우리 엄마의 마음에 행복이...

나이를 먹어도 그 아쉬움이 남지 않기를 부처님께 빌어본다. ♫



지나치게 많은 옷을 갖지 말라

법경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청정한 계율 _ 38

사타법捨墮法 제7조 과량걸의계過量乞衣戒

석존 당시 출가 수행자는 옷을 세 벌만 지니게 하였다. 이를 삼의삼의三衣라고 한다. 삼의三衣란 승가리僧伽梨·울다라승鬱多羅僧·안타회安陀會라고 하는 3가지 옷이다. 승가에서 출가수행자는 삼의가 기본이다.

승가리는 겹에 걸치는 옷으로 외부에 나갈 때 입는 옷이다. 이를 중의중衣·대의大衣라 한다. 외출할 때는 머리에서부터 발아래의 복사뼈까지 옷으로 가리도록 승가리를 입는다. 두루마기가 승가리 정도라 볼 수 있다.

울다라승은 예불·독경·포살 등 대중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입는 옷으로 상의上衣라고도 부른다. 이 상의는 윗옷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빼어나다라는 뜻으로, 이를테면 가사袈裟가 여기에 해당한다. 법회 등 대중이 모일 때 울다라승을 입으며,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걸쳐 입는다. 이를 편단우견偏袒右肩이라 한다. 인도에서는 무더위 때문에 가사만 걸치지만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은 추위가 심하여서 가사 안에 의복을 받쳐 입는다.

안타회는 절 안에서 생활할 때 입는 옷이다. 특히 실내에서 입는 평상복으로, 하반신을 가리는 옷이다. 이를 내의內衣라고 한다. 인도는 무더위가 심하므로 실내에서는 항상 안타회만 입고 지낸다.



이외에도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옷이 있으나 삼의(三衣)가 최소한 갖춰야 할 의복이다. 출가수행자는 반드시 삼의를 지녀야 하며, 많이 갖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삼의도 한 벌씩만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벌을 지닐 수 없다. 그러나 옷이 찢어지거나 잃어버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때는 한 벌만으로 지낼 수 없으므로 여분을 갖는 것이 허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과 여분으로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육군비구가 많은 삼의를 소유하고 외출할 때마다 새로운 삼의를 입고 나가므로 그것을 보고 여러 비구가 이를 비난하였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삼의 한 벌만을 지니고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옷을 잃어버리거나 옷이 찢어진 경우 갈아입을 옷이 없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기(雨季)의 안거(安居)가 끝난 뒤 1개월 동안은 비구들이 삼의를 수선하는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므로 여분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치를 부리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과량결의계(過量乞衣戒)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옷을 갖지 말라는 계다. 많이 가지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으로 인하

여 번뇌와 고통,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수행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공덕을 감하게 된다. 이는 사문(沙門)의 도리가 아니다.

삼의에 대한 규정은 분수에 맞게, 그리고 꼭 필요한 옷만을 지녀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검소한 생활과 무소유의 정신을 말하고 있다.

사타법(捨墮法) 제7조의 인연담(因緣談)과 조문(條文)

지나치게 많은 옷을 갖지 말라는 사타법 제7조의 인연담은 육군비구들로 인하여 제정되었다. 『사분율』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요약하여 싣는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급 고독원에 계실 때, 비구들이 도적을 만나 옷을 모두 빼앗겼다는 소문이 났다. 소문을 듣고 거사들이 옷을 지어 비구들에게 가져왔다.

“비구들께서 옷을 빼앗겼다고 들었는데, 어느 분이신지요?”

“우리들입니다. 어찌 물으십니까?”

“대덕님들께 옷을 공양하러 왔는데,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거사들이 이렇게 말하며 옷을 내놓았다.

그러나 비구들은 이미 여러 도반들에게 삼의를 받아 입은 까닭에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육군비구들이 나서서 말했다.

“대덕들께서 필요하지 않다면, 이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주면 되지 않겠소.”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그 비구들은 거사들에게 옷을 받아 결국 다른 비구와 육군 비구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석존은 모든 비구들을 불러 놓고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어떤 비구가 옷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태우거나 물에 떠내려 보냈을 때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 부인들이 자청하여 많은 옷을 공양한다고 하면 이 비구는 반드시 옷을 받더라도 만족함을 알아 지나치게 많이 받지 말아야 한다. 많이 받으면 사타죄이다.”

과량길의계(過量乞衣戒)의 가르침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물론 개개인의 소비 형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2벌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 진다.

한 벌은 불안하고 두 벌은 조금 여유롭다. 당장 갈아 입을 옷 한 벌과 예비 차원에서 하나를 더 갖는 정도가 적당하다. 두 벌이 그래도 마음

은 놓일 것이다. 그러나 3벌 이상은 욕심이다. 필요 이상으로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이 갖는 것은 분명 욕심이다. 욕심을 버리자.

소욕지족(少欲知足), 적은 것으로도 만족한다는 뜻이다. 가능하면 적게 가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수행생활 가운데 필요한 덕목이다. 욕심이 화를 부르고 그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그것이 선업(善業)을 짓는 길이다. 🙏



다음 호에서는 '분수에 넘치게 옷을 갖지 말라'는 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들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친구 아들이 결혼했다. 한번 들어가면 마음의 눈이 멀어야 나온다는, 슬픔도 소리 없이 언다는 설산으로 가는 길, 만년설을 머리에 인 안나푸르나의 산군^{山群}이 병풍처럼 펼쳐진 쏜롱 라 정상이란다. 바람에 만국기처럼 휘날리는 타르초^{Tharchog}(경전을 쓴 기도의 깃발)를 배경으로 등산복 차림의 두 사람이 팔을 들어 머리 위에 하트를 그리며 활짝 웃는 모습이 싱그럽다. 산을 좋아하는 신랑 신부는 평소 흠모했던 지구에서 가장 경이롭고 장엄한 풍경을 품고 있다는 히말라야에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친구는 카카오톡에 이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아들의 결혼 소식을 ‘한다’가 아니라 ‘했다’로 알려왔다. 예식장으로 불러 국수 한 그릇 대접하지 않았으니 부조금은 사절, 이들 새내기 부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만 감사히 받겠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다. 허례를 말끔히 벗어던질 수 있는 신혼부부의 용기, 뿌린 대로 거두지 않겠다는 부모의 격려가 있으니 그들의 앞날 역시 건강하고 쾌청하리라, 믿고 축복해 본다.

일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린다. 앞집 새댁이다. 쉬시는데 죄송해요, 하면서 20만 원이 들었다는 봉투를 내민다. 친정에 일이 생겨 한 열흘 집을 비우게 됐는데 때마침 월세를 내야 할 날이 사흘 후란다. 미리 월세를 드리고 가려고 근처에 사는 집주인 할머니를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친구들과 온천여행을 가고 안 계시더라는 것,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니 염려 말고 다녀와서 달라고 하시더라. 할머니가 양해하신 일이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내 말에 새댁은 어떻게 그래요, 안 그래도 신세를 많이 지고 사는데, 8년 동안 세 한 번 안 올리셨잖아요, 하면서 내일 저녁에 할머니가 오시기로 했으니 번거롭더라도 전해 달라며 웃는다.

월요일 저녁, 주인집 할머니가 오셨다. 봉투를 드리니 극성이다. 극성, 8년 동안 단 하루도 어긴 적이 없다, 하면서 혀를 차신다. 이럴 때면 나오는 속물근성, 월세가 싼 걸 보니 보증금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하고 물을 수밖에. 그런데 이게 웬 말? 보증금이 달랑 1,500만 원. 돈이 필요해서 받긴 했지만 그것도 마음에 걸린다며 젊은 사람들이 힘든 세상이라 이사 나가기 전까지는 몇 년이 되든지 월세도 그대로 받으시겠단다. 그 저녁 나는, 꼬맹이 생각이 나서 사긴 했는데 좋아할까 모르겠네, 하면서 할머니가 맡겨놓고 가신 가슴을 꼭 누르면 ‘사랑해’를 외치는 강아지 인형의 고백을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다.

불일이 있어 그녀의 사무실에 들렀더니 다른 직원이 눈을 둥그렇게 뜨며 그녀가 3시 반쯤 조기 퇴근을 한 지가 2주쯤 되었는데 몰랐느냐고 묻는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쯤 앞으로 다가오자 사장이 배려를 해 준 것이라고 했다. 출산 장려금이라며 100만 원의 특별 보너스도 지급했단다.

이쯤 되면 사장에게 치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고 없는 방문인데도 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반색을 한다. 사실, 그곳은 2년 남짓 내가 몸담았던 지역 언론사다. 알고 보니 사돈의 팔촌이더라고, 입사 후 막냇동생 친구의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된 터라 퇴사 후, 반쯤은 오누이처럼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다.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그런 예쁜 생각을 하셨대요, 하니까 별말씀을요, 제 형편이 형편인 지라 흉내만 냈는데요, 하면서 부끄러워한다. 소년 같은 모습에서 읽히는 미안함이 안쓰럽다. 지역 언론사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는 터. 특별 보너스도, 근무시간 단축도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그녀에게 전화를 건다. 불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사장의 마음을 대신 전한다. 그럼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는 그녀의 짹 짹한 목소리에 주책이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나는 얼굴마담이야, 라고 말하듯 후배가 대표로 있는 편집 사무실은 뜻이 맞는 작가와 디자이너 대여섯 명이 모여 의뢰를 받은 대로 취재 기사도 쓰고 사진도 찍고 편집에, 디자인에, 인쇄, 납품까지 전천후로 뛰는 조합 형태의 아주 작은 회사다. 그런데 얼마 전 익명의 남자로부터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과 항의를 받게 되었단다. 그들이 만들어 납품한 관광 안내 책자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것. 고향 사랑이 철철 넘쳐서라고 하지만 위험 수위를 넘어선 남자의 폭언에 실수의 당사자인 막내작가는 울고불고….

후배가 팔을 걷어붙인 것은 바로 그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지, 충고를 빙자해 푸닥거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열혈남(!)을 상대로 정중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기백 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재판을 찍겠노라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후 그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렸으니, 조언이나 충고도 예의를 지켜서 품격 있게 해 주십사…. 막내작가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어깨를 두드려 줬고 일을 마무리한 후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일머리를 꼼꼼하게 일러주었다고 한다. 나 같으면 보나 마나 길길이 뛰는 게 먼저였을 것 같은데, 까마득히 어린 후배에게서 또 한 수 배운다.

해물점으로 유명한 그 식당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다닌다는 수재^{秀才} 아들로도 소문이 자자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내리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는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곳곳에 나붙은 축하 현수막으로 어머니를 기쁘게 했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아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했다.

그런데 어머니를 기쁘시킬 일이 터지고 말았다. 식품생명공학이라는 전공을 살려 국내 유수^{著名}의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연구원, 대학교수가 되었어야 할 아들이 어머니의 손맛을 잊겠다며 앞치마를 두르고 나선 것이다. 머리를 싸매고 누운 어머니의 상심이 백 번 이해가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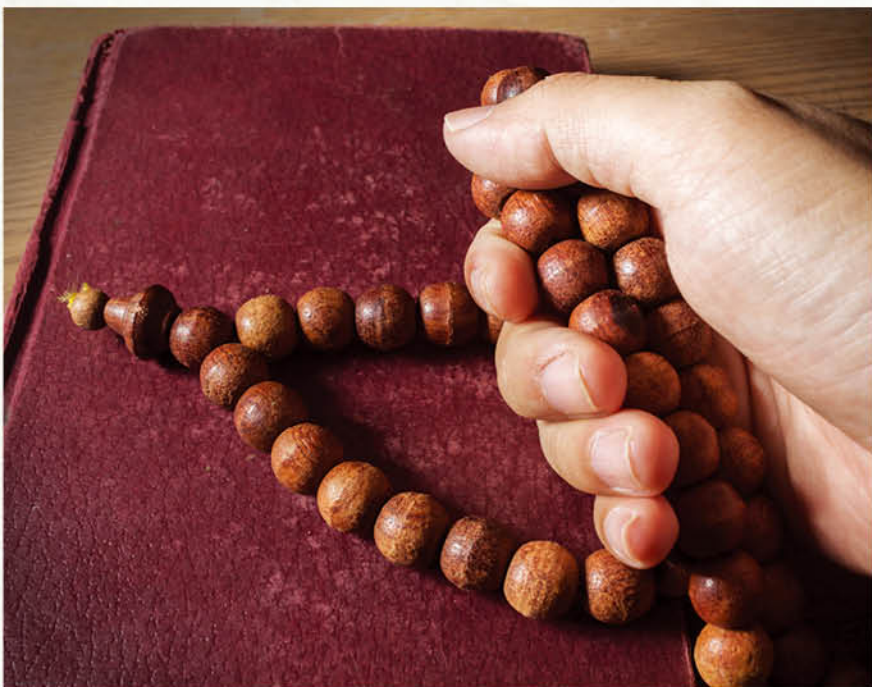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을 회초리 삼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다. 학문으로 배운 식품 이론을 건강한 식생활에 접목하겠다는 그의 뜻은 확고했다. 어머니의 절망을 자포자기로, 그것을 다시 이해와 긍정으로 바꾼 것은 역시나 수재답게, 주방장으로도 일가를 이루어 가며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10여 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양복을 짝 빼입은 아들 친구들을 보면 가슴 한쪽이 쓰리다는 어머니.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안 좋은 음식에 환호하는 세태에 회의가 느껴지기도 한다는 아들. 그래도 이들이 웃는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음식, 대를 이어 지켜가는 30여 년의 내공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이여, 행복하고 태평하고 안락하여라.”
짧고 간결하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행해야 할 바른 법도’가

가득한 <숫타니파타>의 한 구절이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바, 행복하고 태평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대들이 있어서, 그대들이 행복한 만큼, 어부지리 격이지만 나 역시 행복하고 또 행복하다. ♫





새벽에 문득 일어나 염주를 들고 있을 때가 있다. 말 그대로 염주를 들고 있는 것이다. 염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들고 염주 몇 알을 굴리며 진언을 하는 것이다. 꿈자리가 시끄러울 때도 그랬고, 낮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도 그랬다. 그렇게 염주를 잡으니까 반메혹을 입으로 내 뱉는 것만으로도 좀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다. 누구한테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일이면 더더욱 그렇

다. 나는 앞만 보고 살아왔다. 다른 사람도 다들 그렇지만 나는 전투적으로 살아왔다.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을 경계하며 살았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이 생기고 우울하기도 했다. 그래서 혼자 뭔가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염주를 들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독거리는 것을 내가 언제부터 했을까 생각을 해 보니 꽤 오랫동안 해 온 습관 같은 것이었다. 나도 모르지만 천천히 내 것이 되어버린 습관.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절에 다녔다. 엄마가 절에 다니시기는 했지만 내가 본격적으로 절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그 때다. 오빠 언니가 다들 학생회 법회를 하러 절에 갈 때, 가끔 따라 간 것이 전부였기에 중학생이 되어 정식으로 학생회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게 마치 상 같았다. 어찌나 설레던지.

숫기 없던 나는 학교는 다르지만 친구를 거기서 사귀었고, 그 친구들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화해를 하며 청소년을 보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지 그 친구들과 학생회 선배들에게서 배우고 다듬어진 것 같다. 사춘기도 겪지 않고 건너 왔고, 좁은 소견을 넓게 만들어 준 것도 학생회에서 만난 선배들과 친구들 덕분이었다. 놀 거리도 없고, 놀 수 있는 장소도 별로 없었고,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이 불량 청소년이 되던 시기였지만, 절에 다니는 이성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혼나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야외 법회라도 하는 날이면 들뜨기도 하고 노래 자랑에 나가기 위해 며칠

동안 친구들과 함께 연습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 친구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는 것도 즐거웠다. 남의 연애사에 감 놈라 대추 놈라 참견도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말이다. 선배들은 공부가 조금 어려우면 나서서 후배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학생회는 자발적이고 유쾌한, 일종의 복지관이나 지역 청소년 센터 같은 곳이었다.

그래도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있었고 설레었지만 절에 오면 언제나 먼저 서원당에 들러서 염송을 해야 하는 불문율이 있었기에 염송도 열심히 했다. 깜빡 잊고 염송을 안 하고 놀거나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배 누군가가 혹은 친구 누군가가 “너 염송은 했냐?” 하고 물어 보면 깜짝 놀라 후다닥 서원당에 올라가 염송을 했던 적도 있다. 이상한 것은, 절 밖에서는 좀 껄렁하고 무서운 선배들도 절에 오면 염송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좋기도 했고, 염송하면 마음도 누그러드는 것 같아서 나는 날마다 절에 갔다. 날마다 염송을 하는 것이 뿌듯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아버지한테 혼나고 집에서부터 울면서 절에 간적도 있다. 텅빈 서원당에 앉아서 염주를 돌리기만 했는데 서러워서 서원당이 떠나가라 운적도 있다. 나의 위태위태한 청소년기에 절에 다니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의 나한테는 절은 피난처이면서 완충지대 같은 곳이었다. 힘들 때

서원당에 와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 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해준 사람도 친구들이나 선배들이었다. 염송하는 법도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고 서원하는 것도 선배들을 통해서 배운 것 같다. 고마울 따름이다. 그래서 그 때 그 선배들과 친구들과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함께 거쳐 온 사람들이라서 아직도 친하고 아직도 끈끈하다. 지금은 어떤 절에서 학생회 법회를 아직도 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 어디서 나처럼 흔들리는 청소년을 보듬고 앞으로 나갈 힘을 주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 나도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학생회에서나 절에서 배운 것과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나는 염주를 들고 늘 하던 데로 옴마니반메움을 한다. ♣





업^業이란 조작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의지에 따라 행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활동작용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몸으로 짓는 업을 신업^{身業}이라고 하고, 잘 짓는 것을 선업^{善業}이라 합니다.

몸으로 짓는 선업에는 3가지가 있는데,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淫}이 있습니다. 『십선업도경』에서 그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첫 번째의 선업은 불살생^{不殺生}입니다. 불살생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면 남의 목숨도 소중하듯이 서로 존경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더 적극적인 불살생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생을 하지 않으면 진심^{真心}을 일으키지 않으며, 몸에 병이 생기지 않고,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몽^{惡夢}에 시달리지 않으며,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악도^{惡道}에 떨어지지 않으며, 목숨을 마친 뒤에는 천상^{天上}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로써 상대를 죽이지 않는 것이 실생활^{實生活}에서의 불살생^{不殺生}입니다.



두 번째는 불투도^{不偷盜}입니다. 불투도란 도둑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남의 재물을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말없이 가져가는 것, 가져가서 갚지 않는 것, 자기 몫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 등이 모두 투도^{偷盜}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를 도둑질이라 합니다.

경전에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재물^{財物}이 쓸데없이 나가지 않으며, 관재^{官災}가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주위 사람들이 속이지 않으며,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며, 손실^{損失}이 없으며, 명성^{名聲}이 자자해지고, 보시^{布施}할 뜻을 항상 품게 되며, 대중들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워 할 일을 당하지 않으며, 재산과 생명이 안온^{安穩}하여 원만구족^{圓滿具足}하고 손실이 없으며, 목숨을 마친 뒤에는 천상^{天上}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불투도^{不偷盜}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사음^{不邪淫}입니다. 불사음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불사음은 성^性에 있어서 부도덕^{不道德}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음을 하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이 맑아지며, 부적절한 말을 아예 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몸과 정신이 난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실생활에서 불사음이란 한마디로 바른 몸, 맑은 정신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몸과 입과 뜻 가운데 몸에 관한 선업입니다. 선업^{善業} 공덕^{功德}으로 일체^{一切}의 공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모르는 줄 모른다

원효(元曉)
신라시대 고승



覺自迷者
非大迷矣
知自闇者
非極闇矣

각자미자
비대미의
지자암자
비극암의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달은 자는
크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리에 어두움을 아는 자는
아주 어두운 것이 아니다.

- 원효(元曉),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

일이나 공부를 좀 해 보면 알게 된다. 모르면서 아는 줄 아는 게 문제임을. 모르면서 아는 줄 알면,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고도 않는다. 모르면서 아는 줄 알면, 다른 이와 의 소통과 공감이 잘 될 리 없다. 그러니 문제다. 원효에 의하면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다. 어리석은 줄 모르고 사니,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모르는 줄 모르고 사니, 다른 존재와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그러니 어리석은 줄 아는 게, 모르는 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야 새 삶을 열어 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원효는 수많은 저술을 집필했다. 알려진 것은 100여 종 240여 권, 현재 전해지는 것은 20여 종 20여 권이다. 대부분 불교경전에 대한 주석서인데,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를 비롯한 원효의 주석서가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의 불교를 수용해 동아시아 불교를 정초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다른 저술들과 달리 『보살계본지범요기』는 특정 경전에 대한 주석서가 아니다. 보살계(菩薩戒, 곧 대승불교의 계를 지키는 것, 그 참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원효가 직접 논술한 책이다. 그래서 『지범요기』는 원효의 육성이 들리는 듯한 저술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원효가 『지범요기』를 통해 가장 경계한 것 중의 하나가 ‘자고심(自高心)’, 곧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다. 계를 형식적으로 지킨다 하여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진다면, 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불법을 좀 안다고 하여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불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계를 지키고 불법을 따르는 참뜻을 어기게

됨을 논한 것이다. 이처럼 『지범요기』는 불교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면서 불교계에 대한 현실적 비판으로 읽힌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떨까. 성직자라고 해서, 공직자라고 해서, 지식인이라고 해서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할 공산이 크지 않을까.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그 참 뜻을 자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손성필 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산책
오늘

김대곤
시인

꿈꾸듯
봄을 맞이하고

가만히
봄바람이 가슴을 건드립니다.

꿈인듯
보내기만 합니다.

난 오늘
꽃이 될까요

난
맨날 맨날 이별만 합니다.

향기가 되어 볼까요?

그래서
참 바보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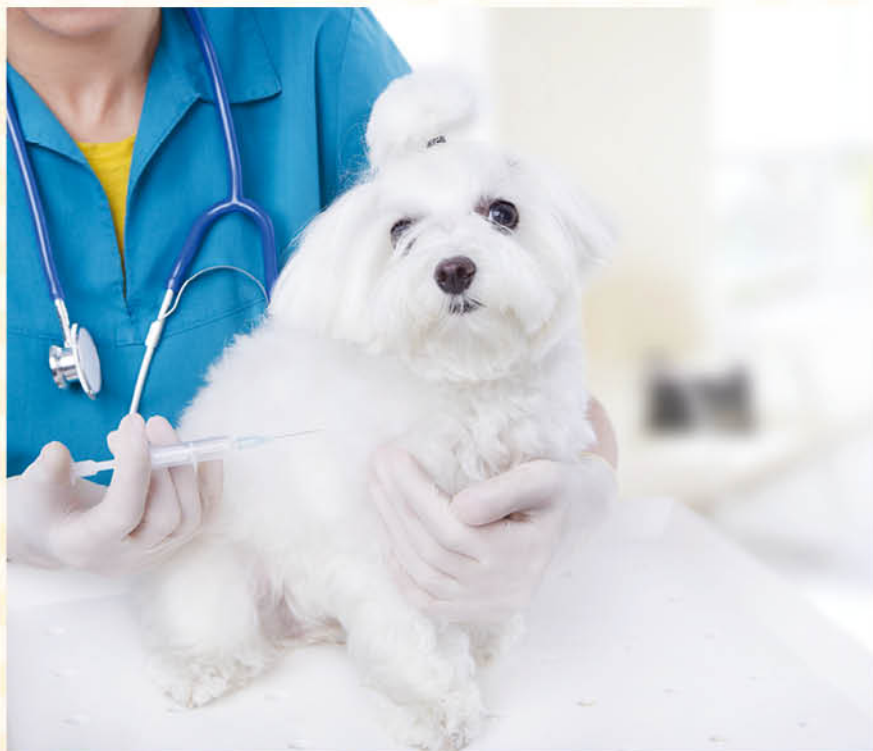
나에겐 선택권이 없네요.
그냥 서 있을 랍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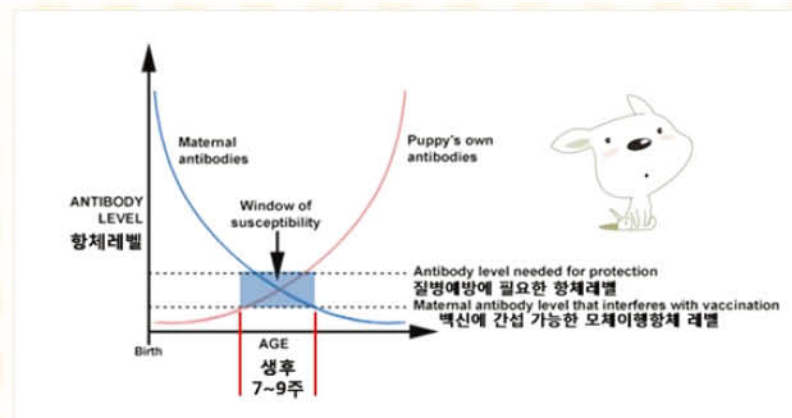
권도형

닥터펫동물의료센터 원장
수의내과학 석사
수의사



‘예방접종’이란 약하게 만들어진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여 쉽게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연습을 시키고, 그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몸속으로 강력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어도 이겨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감염’상태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예방접종은 언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2개월령에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라고 여쭙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전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출생 후, 모유를 섭취하면서 모견으로 부터 높은 항체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항체는 점차 사라지게 되고, 생후 7~9주 정도가 되면 모견으로 부터 받은 항체들로는 질병을 예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후 7~9주령에 첫 번째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스스로 항체를 형성하면서 외부환경에서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건강한 모견’과 함께 커나가면서 꾸준히 모유를 섭취 했을때의 이야기이고, 너무 어린나이에 모견과 떨어져서 지내는 아이들은

7~9주보다 빠른 시점에 예방접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출생 후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5차 접종을 진행하고, 홍역바이러스, 파보장염바이러스, 코로나장염바이러스, 광견병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 적절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양상태가 적절하지 않다면 5차 접종으로도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부족할 수 있기에, 기초접종 후 '항체검사'를 통해 면역력이 충분한지 체크를 반드시 하게 되고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접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생후 4~5개월령이 된다면 기초접종은 마무리가 되고, 높은 항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1년에 한번씩 보강접종을 진행합니다. 보강접종도 매년 꾸준히 해주셔야 항체가 잘 유지될 수 있으며, 몇 년간 보강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항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검사'후 예방접종관리를 하게 되는거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병들은 강아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만 잘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감염'상태가 된다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 예방접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반려견들은 꾸준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건강한데 굳이 주사를 맞춰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의 건강을 위해 지금이라도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예방접종'과 관련한 내용을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꽃보다 아름다운

지현
자석사 전수

“전수님, 오늘 꽃 정리 할까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생기 있는 그녀의 목소리.
“꽃 정리? 아, 네~”
발령으로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인
상황, 어리둥절했지만 반사적으로 응답을 했다.



자석사에는 월초 때마다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려지는 꽃들이 어느 정도
시들기 시작하면 새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월초 때 꽃은 꽃들은 대부분 1, 2주가 지나면 뽑아 버
러지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겼다.

하지만 그 때쯤 맞춰 어김없이 꽃들을 새로 피어나게 하는 그녀를 보는 것
이 이제는 그달의 새로운 설렘이 되고 있다.

‘이번엔 또 어떤 모양을 선보일 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처음의 싱싱함을 잃고 늘어져버린 꽃잎을 한
잎 한 잎 떼어내고, 누렇게 빛바랜 잎들은 줄기로부터 훑어내 가지런히 정
리한 다음 마음을 집중하여 다시 하나하나 새로 꽃는 모습은 그 자체가 선
정의 상태가 아닐까 한다.

분명 새 꽃을 꽃을 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
을 곁에서 지켜보면 느낄 수 있다.

물론 나의 시선으로는, 잘 꽃고 아니고를 떠나 꽃을 다루는 누구나 그 모
습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숭고해 보인다.

그런 의식의 바탕에는 빛 곱고 싱싱한 꽃들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당연
하였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생각들이 선입견이라는 것을 그녀를 통해 알
게 되었다.

화려함을 잃어버렸으니 버려야 마땅하다는, 버려도 무방하다는 당당
함을 그야말로 부끄럽게 만든 그녀의 진지한 몸짓이나 손놀림이 내겐
꽤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의 내 상식에선 생각할 여지없이 무참히 뽑혀 버려졌을, 시든
꽃들이기에.....

하지만 매번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지극히 정성스런 손길로 새롭게
피어내 불전에 공양 올리는 그녀에게서 고요한 구도자의 마음을 본다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

낡고 초라하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단지
오래 되었다는 이유로 팽개쳐지는 것들이 널브러진 세상이다. 그들과
함께 같은 시간을 공유한 익숙함이나 친근감보다는 유행과 편리함이 앞
서는 세상.

‘minimal life’이니 ‘버림에 대한 미학’ 등과 같은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것
도 좋지만. 자칫 무엇을 버려야 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혼동 되는 건 아닌지.....

버려질 꽃들을 새로이 피어낼 줄 아는, 꽃보다 아름다운 그녀에게서
난 해답을 찾기로 한다. ♫

중생의 마음과 연꽃의 마음

석준호
정심사 교도



우리와 같은 중생들에게 부처의 마음이 있듯이 개유불성이라, 모든 만물에는 다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엘리트 범우님들께서는 모두 공감 하실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불심을 다른 모습의 부처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닦고자 합니다. 범우님들께서는 어떤 모습의 부처를 닦고 싶으신가요?

법당에 계시는 미소 지은 부처님도 계실 것이고, 바위 같은 단단한 부처님도 계실 것이고, 대나무 같은 곧은 부처님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중에서 연꽃 같은 부처님을 닦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꽃에 담긴 이치가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죠. 연꽃은 진흙 연못에서 피어나듯이 우리의 삶 또한 오탁악세 속에서 살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진흙 속에 연꽃은 왜 깨끗하게 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바닥이라는 주위 환경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에도 집착을 안하죠. 만약 연꽃의 작은 씨앗이 진흙에 집착했다면 그 씨앗은 썩어버렸을 것이고, 자기 자신에 집착했다면 싹을 틔워서 성장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연꽃은 모든 것에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탁한 환경에서도 청정한 연꽃이라는 부처로 탄생할 수 있었던 거라 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외면 세계에 집착하며 원망하고 나 자신을 집착하며 자책하게 된다면은 그 마음은 정체되어 성숙한 성인이 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않는 연꽃처럼 모든 것을 자비로 받아드린다면 우리는 깨끗한 부처의 성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생명의 근원

법수연
화음사 전수



불佛과 부모父母는 생명生命의 근원根元이다.

(종조법설집 p.241)

은혜는 생존의 근원이다.

우리 생존이 혼자 독자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해
반성해 봐야 한다. 부처님과 부모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인 부모, 세상에서 하나뿐인 어머니를 멀리, 영원히 보내
며 49재를 지낸 교도가족의 사연으로 자성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희들 곁을 떠나신지 벌써 49일이라네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사시던 집에는 꽃이 피었다 지고, 수풀들은 우거지고 그렇게 봄이 휜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가슴에는 어머니와 함께한 추억들이 여전히 바위덩어리처럼 눌러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돌이켜보면 당신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신은 머리는 높되 지독하게 가난한 남자를 만나 온갖 어려움 속에 저희 칠남매를 낳아 기르셨지요. 그 모진 세월동안 당신께서는 저희들의 가슴에 영원토록 기억하고 되새기며 교훈을 얻을 만한 모습만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지지리도 가난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이웃에겐 더없이 넉넉하셨지요. 집안일과 들일을 거의 도맡아 하시며 한시도 쉬지 못하면서도 지치거나 낙담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암울한 살림살이 가운데서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저희들을 길러내셨습니다. 변변한 졸업장 하나 없는, 배우지 못한 당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슬기로운 분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불효한 자식들의 곁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묵묵히 지켜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순결한 아내이자 온순하며 충실한 어머니였던 당신, 가장 가난하면서도 가장 넉넉했던 당신, 가장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던 당신, 배운 것이 없어도 지혜가 넘쳤던 당신, 심지어 당신께서는 말년에 병상에 누워 힘겨워 하면서도 순진한 아이처럼 저희들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눈물 없이는 떠올릴 수 없는 어머니, 저희들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사랑과 진실한 존경을 받으소서. 현세의 연이 다하여 이렇게 보내드릴 수밖에 없다 해도 저희들이 살아 있는 한 언제까지나 어머니를 기억하고 추억할 것입니다.

저희 자식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찾으며 어머니를 대하듯이 서로를 보듬어 안고 더욱더 우애 있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자식들 걱정일랑 버리시고 편안히 가십시오. 이제 이 가슴 아픈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지라도 어머니의 다음 생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이별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머니 부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저희들의 어머니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어머니를 사랑하는 칠남매 대표 둘째

토요일 오후 보살님 내외가 당황한 모습으로 불공을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간 노환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부쩍 힘들어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추슬러가며 조금의 휴식을 취한 다음 어머니 불공을 진행했습니다.

회향서원을 하면서 펜스레 꽃 공양에 대해 마음이 많이 치우쳤습니다. 여러 해 동안 고생했지만 마지막 모습이라도 좀 편한 모습이길 바라는 마음에 아름다운 꽃 공양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불공 종료를 알리는 죽비소리에 이어 각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전수님 부처님 전에 꽃 공양은 어떤 의미로 합니까?”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꽃을 보면 누구라도 예뻐서 환희를 표현하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꽃 공양함에 보시를 하고 합장을 하더니 한참을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무척 진지해 보였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진실하면 부처님 법을 통하여 이렇게도 즉시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하는 밀법의 묘미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운명하셨다는 전갈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칠남매들이 걱정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아기

가 잠든 모습 같았다고 합니다. 앞서 불공하면서 보여주는 당채법문을 현실에 어울리게 잘 대처한 결과일 것입니다.

초재를 하루 앞둔 토요일에는 각자님 한분이 등산 갔다가 수줍은 모습을 하고 있는 야생란을 14축이나 캐서 사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어제도 같은 길을 지나갔는데 보이지 않던 란을 고인에게 드리고 싶다면 서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에 꽃이 핀 길로 두 개의 분을 만들고, 나머지는 한축씩 여러 개의 분을 만들기 위한 란석을 사려고 란원에 가서 얘기를 나누던 중 란원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따로따로 심으면 다 죽어요. 7축씩 뿌리를 뚫뚫 뭉쳐서 심어야 서로 의지하고 살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진기한 법신불의 설법! 의종은 7남매임이 틀림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매 재 때마다의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문 풍경이었습니다. 효심 가득, 우애 가득. 고인 역시 생전에 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오가는 대화 또한 서로 고생했다, 수고가 많았다, 고마웠다는 같은 심성 고운 말들 뿐이었습니다. 7재를 지내는 동안 공양거리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불공을 통해 보이는 당채법문으로 고인의 삶과 가족 간의 모습 등을 아주 투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협화음 속에서라면, 아무리 재를 크게 지낸다 해도 결코 고인에 대한 진심어린 예의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인 역시도 그런 재를 사양하고 싶을 겁니다.

유가족들 중에서는 우리 교도가 아닌 분들이 여럿 있었음에도 매 재

때마다 동참하고, 어른과 아이를 막론하고 진심을 담아 진지하게 훈향 정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고인에게서 당장 인세인연을 맺어 자손으로 올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호국가불공 및 부모조상 은혜 갚기 위한 불공기간을 계기로 부모의 은혜가 생존의 근원임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짚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은혜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불자들이 되기를 두 손 모아 합장발원 합니다. 卐





☼ 차의 유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차의 재배가 시작된 것은 신라 흥덕왕 3년(A.D. 828년)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대림^{대림}이 차 종자를 가져와 왕명으로 지리산에 심게 한데서부터 유래되었고 그 곳 사찰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삼국유사에서 가락국시절 김수로왕과의 혼인에 허황옥이

아유타국(인도의 옛이름)에서 가져온 예물 중에 차 씨앗이 있어 김해에 심게 했고 지금의 장군차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문무왕 때 종묘 제사를 지내는 음식에 차가 놓였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차는 1천년 이상 우리 민족과 함께 하며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웃 중국의 설화로 ‘신농설’이 있으나 또한 달마대사가 우연히 찻잎을 씹어 먹었더니 졸음이 달아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졸음을 쫓지 못하는 것에 화가나 눈꺼풀을 잘라 던졌는데 그곳에 차나무가 자라났다고 전해집니다.

☼ 차의 종류

차는 대표적으로 찻잎의 가공방법과 발효정도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비발효차인 녹차^{green tea}와 반발효차인 백차, 황차, 청차, 발효차인 홍차, 후발효차인 흑차에 속하는 보이차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녹차로 우전, 세작이 있고 일본은 옥로차, 중국은 서호용정이 있습니다. 홍차는 쓰리랑카의 실론티와 영국 사람들이 홍차에 착향을 시킨 얼그레이차가 있고, 백차는 찻잎에 흰털가루 같은게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고 중국의 백호은침이 유명합니다.

청차는 우롱차로 우리나라에서는 음용음료로 제조되어 판매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오룡차라 하며 중국의 철관음차가 대표적입니다. 보이차는 중국의 명차로 알려진 차로 중국 운남성에서 생산되어서 차 마고도를 통해 티벳 등지로 마방에 실려 가다가 발효된 후발효차의

대표적인 차이며 우리나라에는 차보다 다이어트에 좋다고 소문나 다 이어트 보조제로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차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흔히 중국 사람들은 “평생 동안 매일 다른 차를 마셔도 죽을 때까지 모두 마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 차를 선택하는 방법

좋은 차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형과 색, 향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겉으로 보아 부서져 있지 않고 찻잎이 완전한 모양이며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차에서 특유의 향이 나야 하고 쾌쾌한 듯 묵은 냄새가 나면 좋은 차가 아닙니다. 또한 찻잎을 잡았을때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를 우려 마셨을 때 구수한 향과 기분 좋은 향, 달콤한 향, 싱그러운 향 등이 은은하게 코 끝을 스치는 것이 좋은 차입니다. 그러나 차를 마시다가 살짝 비린내나 거름냄새가 난다는 것은 차의 보관 상태나 가공과정에서 잘못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상 있는 차는 발효차인 보이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정해진 발효과정을 무시하고 단축시켜 대량 생산하려다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구입 할 때는 재래시장이나 차시장에서 잎을 직접 구입하기보다는 가급적 정식 유통되어 상표화 된 차가 좋습니다. 표준화된 품질에 대한 신빙성 문제에서부터 유통기한 등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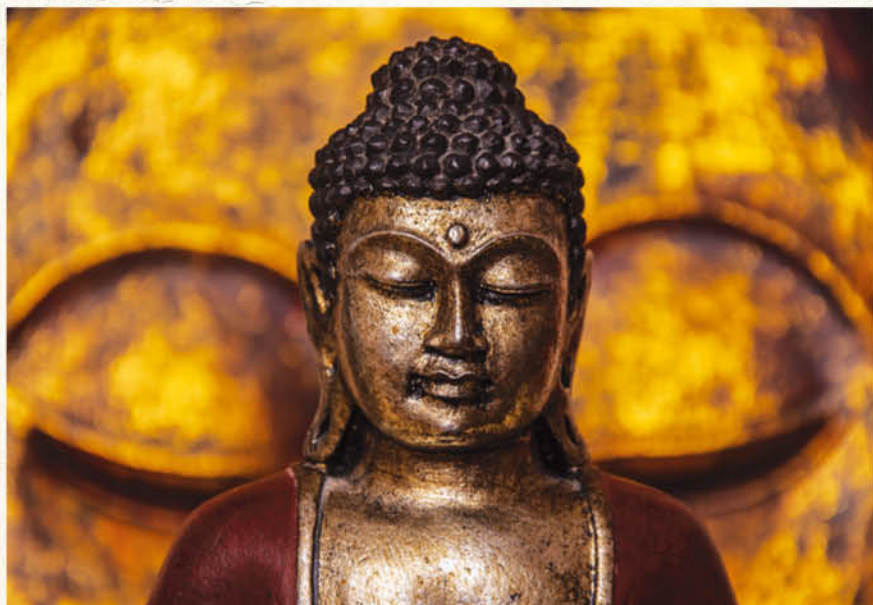
☕ 차를 보관하는 방법

찻잎은 일반적으로 빛이나 열, 습기에 약합니다. 따라서 소량으로 나눠 밀봉이 잘 되는 용기에 넣고 햇빛이 들지 않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녹차는 주변의 냄새를 빨아들여 밀봉하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른 음식 냄새가 그대로 밸 수 있어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해야 할 때는 밀봉하거나 알루미늄 용기에 넣어 밀봉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상온에서 보관하고 한지나 종이에 싸서 용기에 넣고 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된 찻잎을 꺼내어 차를 우려 마실 때는 용기에 생긴 물기가 사라질 때 까지 기다렸다가 녹차 잎에서 찬기가 사라진 뒤에 우려 마시는 게 차 맛을 더 좋게 합니다.

이렇듯 차는 아주 오래전 약용이나 제사에 올리는 귀한 음료로 시작하였으나 차차 다양화되고 기호 식품화 하면서 취미생활과 연결되었고, 지금의 다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인과 달리 우리 선조들은 여유로움을 즐기고 더불어 사는 민족 이였듯이 차를 마시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의 여유와 안정을 찾아 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 생각됩니다. ♫





하루는 질달다 장자가 암라숲에 와서 부처님과 존자들에게 공양 올리기를 청했습니다.

수행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장자는 얼른 집으로 돌아와 밤을 새워가면서 수행자들을 맞을 음식을 만들고 갖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암라숲까지 심부름꾼을 보내 존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존자들이 큰 가사를 입고 발우를 든 채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질달다 장자의 집에 도착하자 장자는 존자들에게 손수 음식을 나누어 드리며 진심을 담아 정성껏 공양을 베풀었습니다.

공양이 끝나자 존자들은 장자를 위하여 차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준 뒤 암라숲의 거처로 돌아가기 위해 장자의 집을 나섰습니다. 질달다 장자도 배웅하기 위하여 뒤따라갔습니다. 때는 여름이라 햇빛은 모든 것을 태울 마냥 이글거렸습니다. 존자들은 배가 부르데다 날씨가 덥자 몸이 무겁고 건디기가 불편했습니다. 이때 일행 중 마하가라는 젊은 수행자가 앞으로 나오더니 비를 불러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존자들은 할 수 있으면 해 보라 흔쾌히 허락을 하였고 마하가는 곧 삼매에 들어 비가 오기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조금 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찌는 듯 덥던 날씨가 서늘해져서 모든 수행자들은 기분 좋게 암라숲에 도착하였습니다. 마하가는 비를 내리게 한神通력을 거두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질달다 장자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저렇게 젊은 수행자의神通력이 지금 이리도 뛰어난데 시간이 지나면 저 젊은 존자의神通력은 얼마나 더 대단해질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질달다 장자는 마하가의 방으로 찾아가 다시 한 번神通력을 보여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마하가는 승낙을 하였고 장자에게 방안에 마른 풀과 나무로 쌓고 그 위에다 한 장의 모포를 덮어 두라 일렸습니다. 질달다 장자가 마하가가 말한 대로 준비하자 마하가는 방문을 닫고 화광삼매火光三昧(불을 내는 선정)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한 줄기 불꽃이 비치더니 쌓아 놓은 나무는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나무를 덮은 모포는 타지도 않고 그을음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 그대로

로였습니다. 마하가는 삼매에서 일어나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장자여, 내 신통을 보았습니까?”

장자는 매우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신통력입니다.”

그 길로 질달다 장자는 마하가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 다 할 때까지 공양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의복이며 음식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양하였습니다. 마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누렸고 주위의 충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마하가는 점점 주변인들을 무시하고 게을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자는 마하가에게 신통력을 보여주길 청했습니다. 마하가는 자신있게 신통력을 보여주마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것도 보여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신통력을 보려 모여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고서야 마하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 경지에 다다른 것은 도를 닦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방일하지 않은 그 근본이 쌓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것이었다. 하지만 자만과 게으름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잃은 것이다.’

장자는 마하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공양이 부족하여 신통력을 잃은 것이니 더 많은 것을 공양하게 해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마하가는 그런 공양은 자신의 수행에 방해만 될 뿐이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마하가는 아무도 모르게 암라숲을 빠져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의 독립을 돕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반 주택을 사들여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자립 주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장애인들의 입주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엄마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대기업 경영자 일가족의 ‘갑질’ 논란이 뉴스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은 상대보다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본인의 주머니만 채우기에 급급하고 남보다 더 가져야만 이겼다고 생각하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족 속에서 나를 단속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도 내 뱃속만 채우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에게 피해주는 것은 모조리 제거하려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 中庸의 중요함을 가리킵니다.

넘치면 자만해집니다. 자만해지면 나태해집니다.

그러나 모자라면 겸손해지고 더욱 부지런해질 수 있습니다. ♪



콰이어트 플레이스

한미옥
정각사 교도



우리가 살면서 소리를 안낼 수 있을까? 소리를 내는 순간 공격받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가족의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가슴울림을 주는 영화.

🍷 생존법칙

- ❶ 어떤 소리도 내지 말 것.
- ❷ 아무 말도 하지 말 것.
- ❸ 붉은 등이 켜지면 무조건 도망갈 것.

콰이어트 플레이스라는 제목처럼 영화 내내 인물의 음성대화는 드물게 등장한다. 대부분 수화를 사용해 짧게 의사를 전달하고 목소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명소리 몇 번과 안전지대에서의 짧은 대화가 전부이다. 배경음도 마찬가지로 드물게 등장하며 효과음 또한 괴물의 갑작스런 출현 부분을 제외하고 전무하다시피 하다. 덕분에 주변의 자연소리, 등장인물들의 숨소리 하나까지 집중해서 듣게 된다. 이런 설정들은 배우들의 연기력에 상당히 의존하게 되는데 감독인 존 크래신스키는 자신이 직접 주인공으로, 자신의 실제 부인인 에밀리 블런트를 극 중 부인으로 등장시키며 뛰어난 연기를 선보인다. 또한 장녀 리건 역을 맡은 밀리센트 시먼스는 실제 청각장애인으로 영화상에서의 청각장애를 실감나게 연기한다.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다른 재난영화들과 달리 상황설명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바로 재난상황에서의 가족이야기로 시작한다. 이런 연출법은 흔히 재난영화에서의 지루한 설정설명 장면들을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시간이 흐르며 상황을 짐작하게 만들고 영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진부하지만 중간 중간 소리를 통해 관객을 놀래키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극중 상황과 맞물려 공포영화의 진부한 설정을 더욱 긴장감 넘치게 만들어준다.

🎬 줄거리

첫 장면은 황량한 도시에 식량과 비상약을 구하러 빈 마트에 들어간 다섯 가족의 모습. 가족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긴장하며 수화로 대화를 나누고 맨발로 걷는다.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장녀인 레건이 막내에게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난감의 소리로 인해 막내는 괴물에게 죽게 된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임신한 엄마의 출산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아빠와 아들은 식량을 구하러 산으로 갔다. 막내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미워해서 자신을 사냥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오해로 레건은 막내의 묘로 가출한다. 그 사이 빨래를 하던 엄마는 양수가 터지고 곧 이어 액자를 깨트리며 큰소리를 내게 된다. 그 소리로 인해 괴물들이 몰려오게 되고 붉은 등을 켜 괴물의 침입을 경고한다. 옥조로 숨은 에블린은 숨을 죽여가며 진통을 참는다. 집 근처에 도착한 아빠와 아들은 붉은 등을 보고 아들에게 폭죽을 터트려 괴물의 주의를 끌라고 말하고 아내를 찾아 집으로 향한다. 폭죽이 터지는 동시에 에블린은 아이를 낳고 아빠와 함께 방음장치가 되어있는 지하로 갔다. 한편 아들과 딸은 옥수수 밭에서 만나게 되고 옥수수 저장고의 옥상에서 아빠를 기다린다. 기다리던 중 저장고로 떨어지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은 괴물이 들이닥친다. 그때 레건의 보청기와 괴물사이에 공명이 발생하고 그 소리에 괴로워하던 괴물은 도망친다. 마침내 아빠와 만난 딸과 아들은 집으로 가던 중 괴물과 마주치게 되고 딸과 아들을 트럭에 대피시킨 뒤 아빠가 공격을 받는다. 공격받는 아빠에 놀란 아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고 딸과 아들은 위험에 처한다. 이때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딸을 향해 자신의 진심을 담은

고백을 수화로 전하고 딸과 아들을 위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희생한다.

집으로 돌아온 딸과 아들은 엄마와 만나지만 여전히 괴물은 집근처를 배회한다. 아이의 울음소리로 괴물들이 몰려오고 위기의 순간 레건은 보청기와 괴물사이에 공명이 괴물의 약점임을 파악하게 된다. 보청기를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증폭시키는 순간 괴물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틈에 에블린이 총을 쏘아 괴물을 물리친다. 총소리에 괴물들은 몰려오지만 비장한 표정의 딸과 엄마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난다.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스틸을 통해 강렬한 부성애, 모성애와 가족애를 표현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특히 영화의 후반부에 침묵을 깨고 아빠가 딸에게 진심을 전하며 희생하는 장면은 큰 울림을 주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공포영화나 스릴영화는 깜짝 놀라는 장면이 많아 싫어하는데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숨소리도 죽여가면서 보았지만 또 보고 싶은 감동이 있는 영화다. 🎬



그녀는 누구를 위해 머리카락을 기르는가 (上) - 라푼젤

박현희
사회과 교사



라푼젤은 머리를 길렀다

미용실에 가면 내 머리를 손으로 한두 번 훑어보고 꼭 하는 말이 있다. “머릿결이 정말 약하네요.” 미용실에 가기 전에는 이런저런 새로운 스타일을 꿈꿔 보기도 하지만 “머릿결이 정말 약하네요.”라는 말 앞에서 내 꿈은 민망함에 종종걸음 치며 뒤로 물러서게 된다. 이렇게 형편없는 머릿결을 가졌으면서 이런저런 스타일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분수를 모르는 주책스러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머릿결이 형편없다는 진단을 받으면 소심해진 마음에 이렇게 말한다. “알아서 해주세요.” 미용사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결과가 어떻건 간에 받아들인다. 미용실에서 두세 시간을 보내고 돈을 퍼부어 댄 결과가

내 마음에 별로 달갑지 않더라도 그건 미용사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내 저질 머릿결 탓이다. 그러니 이말 저말 하면 안된다. 안 그러면 미용실 문을 나서는 내 뒤통수로 “흥! 주제도 모르고 솜씨를 탓하거는! 미용사는 미술사가 아니라고!” 하는 비웃음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낙심한 마음을 애써 숨기고 미용실 문을 나설 때마다 나는 라푼젤을 생각한다.

라푼젤,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의 주인공.

건장한 성인 남자가 용을 쓰며 그 머리카락에 체중을 실었을 텐데도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왕자의 체중을 그대로 받아 줄 수 있었으니, 머리카락은 정말 튼튼했을 것이다. 밧줄 대용으로 머리카락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라푼젤이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였을 것이다. 부러워라, 라푼젤! 그녀라면 미용실에서 미용사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원하는 스타일을 주문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미용사에게 항의도 할 수 있을 텐데.

머리카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얹혀 있다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어떤 신비한 힘의 원천이라고 믿는다. 괴력을 가진 삼손을 유혹한 데릴라는 삼손이 잠에 빠진 틈을 타서 머리카락을 땡강 잘라 내는 데 성공했고, 힘의 원천이던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은 두 눈이 멀어 버린 채 수모를 겪는다. 누구든 직접 보는 사람을 공포에 질려 얼어붙게 만든다는 메두사의 괴력의 원천도 머리카락이었다. 메두사의 머리카락은 뱀이었다.

머리카락이 신비한 힘의 원천이므로 머리카락을 바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표현이기도 하다. 깊은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의 표현으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삼아 드려도 좋다'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라도 보은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인도에서 부모의 상을 당한 자식은 머리카락을 한 줌만 남기고 모두 밀어 버린다. 부모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장 경건한 방식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라는 뜻에서이리라. 이렇게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춘다는 표현이다.

출가를 한 스님들은 머리를 짝 밀어 버린다. 수녀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나 성당에서 미사를 올리는 여성 신자들이 미사보로 머리를 가리는 것, 무슬림 여자들이 히잡으로 머리카락을 숨기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잡스러운 생각이나 유혹을 멀리하면서 오직 구원과 깨침을 위한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반대로 머리카락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과 위세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서양 왕족이나 귀족들은 가발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싶어 했다. 조선시대에는 가난한 여자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잘라 판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채가 지체 높은 집안 여자들의 머리를 장식했다. 가채가 너무 무거워 여자들의 목뼈가 부러지는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가채에 돈을 쏟아붓는 일이 줄어들지 않아서 법으로 가채를 금지한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아직도 머리카락 이야기는 계속 된다

오늘날까지도 머리카락에 대한 관심과 정성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어느 날 수북하게 빠진 머리카락에 절망하는 여자들, 점점 넓어지는 이마에 좌절하는 남성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한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심 동향을 읽을 때에는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파악하면 손쉽다. 외딴 곳에 작은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생겨나고 그곳에 2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 들어서면 그 상가에는 반드시 부동산, 슈퍼마켓, 중국음식점, 영어학원, 그리고 미용실이 입점한다. 미용실, 두피관리실, 발모제, 모발관리 제품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현대인이 머리카락에 쏟아붓는 돈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머리카락 관련 산업 일자리가 고용의 상당 부분에 이를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다.

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다.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머리카락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머리카락은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신체의 다른 부분이 성장을 멈춘 뒤에도 성장을 계속한다. 긴 머리를 풀어 헤친 귀신 이야기가 그토록 많은 이유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머리카락이 계속 자란다는 속설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잘라도 잘라도 계속 자라나며 신체의 제일 윗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게 눈에 띄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

-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

원숭이에게 배우다



원숭이에게 거울과 빗을 던져준다.

거울을 보며 빗으로 털을 곱게 빗게 한다.

밤엔 거울과 빗을 빼앗고 아침에 다시 던져준다.

그렇게 주고 빼앗고를 1년을 반복한다.

1년이 되는 날 달랑 거울 하나만 던져준다.

원숭이는 습관처럼 거울을 본다.

거울은 원숭이의 헝클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헝클어진 모습을 정돈하려고 빗을 찾는다.

빗이 없음을 알고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손가락 다섯 개를 곱게 펴 빗으로 사용한다.

실험의 결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힘들 땀 흘지 말고 두 손을 꼭 펴라고.

그 두 손을 움직이면 못할게 없다고.

여러분은 원숭이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



우주가 언제 창조되었는지 아십니까?

범일
벽룡사 주교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스님께 말을 걸어왔다.

“스님. 저와 말씀 좀 나누시지요?”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님께서는 우주가 창조된 지 몇 해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기가 스님이 그 답을 알 리가 없지.”

그는 혼자 말하였다.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알아듣지 못할까 염려되어
서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리도 무시하십니까?”

“그렇다면 청년이 먼저 말해보세요.”

“우주가 창조된 지는 지금부터 35년 전입니다.”

청년은 자신이 태어난 시간이 우주가 창조된 때라는
의미를 담아 답변을 한 것이다.

청년은 의기 양양해져서 웃으며 말하였다.

“이제 스님께서 말씀해 보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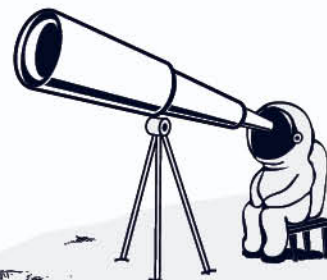
“우주 창조는 5분 전에 시작되었지요. 아시는지요?”

그랬다. 우주 창조는 청년과 스님의 대화가 시작된 5분 전에 이미 시작
된 것이었다.

위 이야기는 금오(金烏 1895-1968) 스님이 금강산에서 수행할 때 어느
날 생긴 일이다.

한 생각 일으킬 때 삼라만상의 우주는 일어나고

한 마음 사라질 때 삼라만상의 우주도 사라진다. ㉠



맹인모상

盲人摸象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盲 장님 - 맹

人 사람 - 인

摸 만질 - 모

象 코끼리 - 상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의 삶은 어두운 두개골 안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같다. 외부 자극에 영향을 받지만 영상은 세상의 극히 일부이며 그것 또한 편집을 통해 방영된다.

‘현실’에 대한 단 하나의 보편적인 경험은 없고 다 함께 공유하는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도 없다. 오직 ‘인식’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만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뿐이다. 인식의 대상은 정신이 받은 인상, 감각,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인식의 대상은 현실이 아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거울에 비친 것은 사물이 투영된 모습이지 사물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투영은 왜곡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두개골에 의해 보호받는 젤리 같은 전해질인 뇌가 외부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감각은 외부 세계와 두뇌를 매개하고, 감각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언제나 중개 과정으로 거친다.¹⁾

열반경은 이와 같이 진실의 존재방식을 그대로 볼 수 없는 우리 인식의 한계에 대해 맹인모상^{盲人摸象}, 즉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화를 통해 말해 주고 있다.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진리에 대해 말하다가 대신을 시켜 코끼리를 한 마리 몰고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장님 여섯 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 보고 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하였다. 제일 먼저 코끼리의 이빨(상아)을 만진 장님이 말하였다.

“폐하 코끼리는 무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코끼리의 귀를 만졌던 장님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곡식을 까눌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옆에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이 나서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둘 다 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구공이같이 생긴 동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코끼리 등을 만진 이는 평상같이 생겼다고 우기고, 배를 만진 이는 코끼리가 장독같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꼬리를 만진 이는 다시 코끼리가 굵은 밧줄같이 생겼다고 외치는 등 서로 다투며 시끄럽게 떠들었다. 이에 왕은 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여섯 장님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진리를 아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니라.”¹⁾

1) 카라 플라토니 지음/ 박지선 옮김/ 이정모 감수, 『감각의 미래』(흐름출판, 2017), 인용 및 참고.

발심

發心

發 필 - 발

心 마음 - 심

- ①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킴.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려는 마음을 냄.
- ② 불문^{佛門}에 들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킴.
- ③ 좋은 마음을 내는 것.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는 발심을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해행발심^{解行發心}·증발심^{證發心}의 세 가지로 들고 있다.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發心}이라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던 어머니가 자식의 대학입시 공부를 지켜보면서 “나도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도 발심이다. 평생 모은 재산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혼연히 내어놓는 것도 발심이며, 간이나 콩팥 등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남에게 보시하기 위해 마음을 내는 것도 발심이다.

대부분 발심은 마음을 내는 것이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마음은 긍정적인 일로 마음을 낼 때 사용한다.



이는 발심이 발보리심^{發菩提心}의 약자로 ‘보리심을 내는 것’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보리는 깨달음,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이니, 발보리심은 깨달음을 구하려고 마음을 내는 것이다.

<금강경^{金剛經}>에서 부처님은 가르치시길 ‘보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심을 내는 것’이라 했다.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자야말로 참다운 보살이란 가르침이다.

깨달음이란 근본 명제를 버려버린다면 아무리 난행고행^{難行苦行}을 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불국토를 건설한다 해도 보살이라 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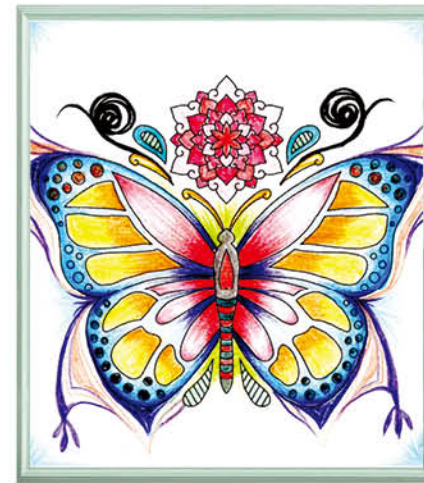
발심과 관련,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란 말이 우리의 눈과 귀에 자주 접하게 된다. ‘처음 마음을 발할 때 곧 정각을 이룬다’란 뜻이다. 즉 처음 발심한 그것이 변치 않고 그대로 있으면 곧 부처님의 경지라는 뜻이다.

모든 사람이 원^願을 세우지만 대부분 그 마음은 쉽게 변하기 마련이다. 원래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불자의 첫 길은 발심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 그리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실현이 바로 불자의 길이다. 발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卍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지난 호 독자 솜씨



▲ 김수미 님



▲ 이승원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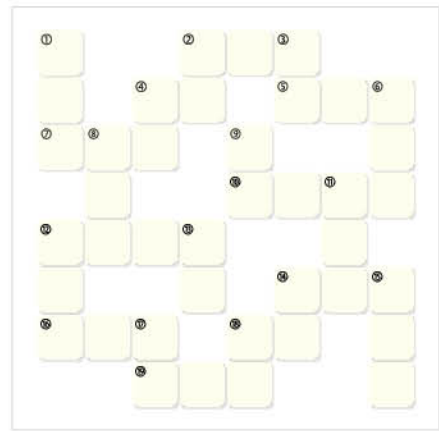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가로세로 낱말퀴즈!



가로문제

- ① 몹시 굵어 기운이 빠지고
배가 고프는 증세
- ④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 ⑤ 정보에 정통한 사람
- ⑦ 신이 나서 우물쭈물하여지는
기운
- ⑨ 싸움에 이긴 형세를 타고
계속 몰아침
- ⑩ 어이가 없어서 말할 수 없음
- ⑪ 일의 뒤끝을 말아서 처리함
- ⑫ 짙고, 사기그릇 따위
- ⑬ 실제의 싸움
- ⑭ 삼으로 짚신처럼 삼은 신

세로문제

- ① 나무를 파서 만든 신
- ② 파종류가 자라면서 벗는 겹질
- ③ 어떤 물건을 성의 표시로 줌
- ④ 돌아다니며 구경함
- ⑥ 공기가 통하도록 낸 구멍
- ⑧ 구매상, 수입상
- ⑨ 쉽게 이김
- ⑩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건
- ⑪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큰 칼
- ⑫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향아리
- ⑬ 나중의 차례
- ⑭ 귀가 긴 말처럼 생긴 동물
- ⑮ 얼굴에 끼는 거대한 얼룩점
- ⑯ 실제로 얻는 이익

한글 낱말은 한글로, 국문 낱말은 국문으로
한글 낱말은 한글로, 국문 낱말은 국문으로
한글 낱말은 한글로, 국문 낱말은 국문으로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sunmac72@naver.com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민두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종철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해성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한미영	허지웅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드다르마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47(2018)년 7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디자인 (주)디자인지
인쇄 동림기획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편집 후기

7월에 꿈꾸는 사랑

- 이제

하찮은 풀 한 포기에도 뿌리가 있고
이름 모를 들꽃에도 꽃대와 꽃술이 있지요.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해도
갓칠것은 다 갓칠야 비로서 생명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바람에 흔들리며 흔들리며
소박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저 여린 풀과 들꽃을 보노라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견딜것을 다 견뎌야 비로소 삶인 걸요.

시원한 여름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해 줄 비를 기다리게 됩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의 나른함에 생각해 봅니다.
알맞은 햇살이 비춰주기를 기대하고,
적절한 단비를 기대하고,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시원하게 해 줄 바람을 기대하고,
너무 많은 바람일까요?

그래도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살아온 절반입니다.
앞으로 남은 절반을 더욱 더 열심히 달려볼까요?



7월호



수전로로 일생을 허비할 것인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자식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거든
배풀어라, 끊임없이 배풀어라

- 환당 대증사 -